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코로나19 팬데믹 속 전북경제 성장 준수

2020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1조2000억원 ↑
경제성장률도 0.1% ↑... 기업유치 등 성과

2020년 기준 전북도의 지역내총생산 증감률 및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 코로나19 경기불황 속에서도 준수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지역내총생산(GDP) 및 경제성장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북의 GDP는 53.2조 원으로 2019년 대비 1.2조원이 증가해 2.3%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0.4% 대비 1.9%p 높게 성장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은 전국평균이 IMF(1998년)시 -4.0% 이후 첫 성장인 -0.8%를 기록한 가운데 0.1% 성장률을 기록, 경기(1.1%), 충북(1.3%)에 이어 도 단위 3위를 달성했다.

지역총소득은 53.1조원으로 2019년 51조원 대비 4.1%가 증가, 증감률 순위도 상위 2위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967만 원으로 전년대비 2.9%(84만 원)이 증가했으며, 1인당 지역총소득은 2,962만 700 원으로

로 전년대비 4.7%(133만 원)이 증가해 증가율 부문에서 각각 도 단위 1, 2위를 기록했다.

2020년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은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건설업은 증가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큰 속에서도 공격적 기업유치,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확보·집행, SOC 사업 등의 성과로 해석된다.

전북도는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고용회복 등 경제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공격적 투자유치로 다수 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 유치에 성공해 새로운 산업지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도는 그간 전북의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특화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격적인 기업유치에 집중했으며, 2020년 SK 컨소시엄, GS글로벌 SK 넥실리스 등 46개 기업과 투자예정액

3조2,085억원, 신규 일자리 4,708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대응 2020년 역대 최대 규모인 1,872억 원의 예산을 투입, 폐업 위기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골목상권 및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청년·신종년 등 계층별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등 지역특색이 반영된 일자리 양성 대책을 수립·추진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의 정착을 유도해 '전북경제의 체질개선'과 '일자리'로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경제'를 실현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풀이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020년 7.6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집행, 군산 고용위기지역 대응 지원 등 재정투입으로 성장을 지켜냈고, 특히 일자리정책의 성과로 공공행정에서 고용이 대폭 늘어나 통계에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내총생산 증감률, 경제성장률 등 긍정적 지표를 의미 있게 봐주시고, 2021년 8.2조원대 국가예산, 전북 군산형 일자리 본격 생산·고용, 역대 최대 고용률 새만금 SK 2조원대 투자이행 등 희망적 경제 아이템이 있어 2021년 지표 또한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단체장을 대표해 한국지방자치대상을 받은 가운데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자생력 강화 · 지방분권 개헌 공로 '결실'

송하진 도지사, 지방신문협회 주관 '지방자치대상' 수상
"수도권 일극체제는 한계... 균형발전 국가정책 중심 되도록"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관한 '한국지방자치대상'을 27일 수상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단체장을 대표해 한국지방자치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송하진 지사는 탄소산업 발

굴과 육성으로 지역 자생력 강화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시정시정으로부터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왔다"면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배경을 밝혔다.

또, 송 지사는 코로나19 극복,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회복,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한 공로도 함께 인정받았다. /유호상 기자

아울러 시도사자협의회장을 연임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차기 정부 중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최대한 대선공약에 반영시켰다.

송하진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많은 단체장들이 소멸해가는 지역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그 분들을 대신해 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균형발전이 국가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자동차산업 예산 1,000억원 시대를 열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도는 친환경·미래차 전환 대응과 상용차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자동차산업 분야 20개 사업에 1,04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미래차 전환 대응 ▲특장차 생태계 육성 ▲상용차산업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정책을 골자로 단계적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고자 정책과제 발굴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2022년에는 최초로 자동차산업 관련 예산 1,000억원 시대를 열며, 투자 확대 기초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2년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친환경·자율주행차와 특장차, 상용차산업 활

자동차산업 예산 1000억원 시대 열다

전북도, 내년 20개 사업에 예산 1041억원 지원
친환경·미래차 전환 대응, 상용차산업 활성화

성화 관련 신규예산이 대거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친환경·자율주행차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용 자율주행차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사업'과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실증지역 조성사업' 등이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된다.

산업용 자율주행차 스케이트플랫폼 개발사업(2022년 30억원)은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 명신 등 참여기업들이 협업체 개발한다.

이 사업은 항만 등에서 처리하는 대량의 화물을 자율주행으로 운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물류 운반의 혁신은 물론 전기차 클러스터의 인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실증지역 조성사업(2022년 7억원)은 새만금주행시험장(1단계 기능검증, 2018년 준공), 자율주행 테스트베드(2단계 성능검증, 2020~2023)에 이은 최종 3단계 사업으로 실도로 위주 기술 실증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동일 지역 안에서 기능 및 성능검증, 그리고 기술 실증이 동시에 가능한 자율주행 전주기 연구 인프라 구축되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장차 관련 사업으로는 전국 유일하게 조성돼 있는 김제 백구 특장단지 내 자기인증센터, 특장차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2022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으로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 구축사업', '특장차 전문검사소'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생산인증 지원검사를 한곳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북도가 국내 최고 특장차 중심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상용차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완성차 및 부품기업, 관련 연구기관, 시군 노조 등이 참여한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와 '노사정협의회'를 구성·가동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을 지난 6월 발굴·확정한 바 있다.

상용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신규로 반영된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부품 개발,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개발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도내 기업이 강점을 갖는 30개의 핵심부품 개발을 집중 지원

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그 외 수입부품의 자체생산을 위한 국산화를 추진해 보유기술의 개선과 즉각적인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하는 등 우리 도내 기업들이 잘 할 수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도 관계자는 말했다.

전병준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글로벌 건설경기 둔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상용차 판매량 감소, 그리고 친환경·미래차 전환 상황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우리 도가 세계 최대 친환경 상용차 생산거점이자, 친환경·자율주행차 글로벌 생산·연구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등 주력산업의 신산업 지도를 그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